

보도자료

스위스재보험 시그마 연구에 의하면, 2015년에 재해로 인한 글로벌 보험손실은 USD 370억에 달함; 텐진항 폭발사고로 인해 가장 큰 보험손실이 발생함

- 2015년에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한 글로벌 보험손실은 USD 370억을 기록했는데, 이는 과거 10년 기간의 연평균 USD 620억에 비해 낮은 것임
- 이는 총 글로벌 경제적 손실의 40% 정도에만 해당됨
- 중국 텐진항의 폭발사고는 2015년 최대 규모의 보험손실 사고였으며, 인재로 인한 아시아 역대 최대 규모의 보험손실 사고였음
- 텐진항 사고에 대한 특별 챗터에서는 대규모 교통허브에서의 누적 리스크에 대한 지식격차를 집중 조명함
- 2015년에 198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했는데, 이는 시그마 기록상 가장 많은 것임
- 2015년에 재해 이벤트로 인해 26,000명 이상 사망함

취리히, 2016년 3월 30일 – 최신 시그마 연구에 의하면, 2015년에 자연재해 및 인재로 인한 글로벌 보험손실은 USD 370억을 기록했는데, 이는 과거 10년 기간의 연평균 USD 620억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이었다. 작년에 총 353건의 재해 이벤트가 발생했다. 이들 중 198건은 자연재해였으며, 시그마 기록에 의하면 이는 한 해 최다 기록이다.

자연재해 및 인재 사고를 포함한 모든 재해로 인한 총 경제적 손실은 2015년에 USD 920억에 달했다 (2014년 USD 1130억). 약 USD 800억은 자연재해로 인한 것이었으며, 네팔의 지진이 가장 많은 손해를 유발했다. 글로벌 경제적 손실은 과거 10년 기간의 연평균 USD 1920억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글로벌 보험손실 USD 370억 중 USD 280억은 자연재해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이는 2014년과 거의 동일한 수치이다. 2015년 최대 규모의 보험손실은 (USD 25억 - 35억 사이로 추정되는 재산손실) 8월에 중국 텐진항에서 발생한 두 건의 대규모 폭발사고로 인한 것이었다.

Media Relations, Zurich
Telephone +41 43 285 7171


Lucia Bevere, Zurich
Telephone +41 43 285 9279

Thomas Holzheu, Armonk
Telephone +1 914 828 6502

Clarence Wong, Hong Kong
Telephone +852 2582 5644

Swiss Re Ltd
Mythenquai 50/60
P.O. Box
CH-8022 Zurich

Telephone +41 43 285 2121
Fax +41 43 285 2999

www.swissre.com
 @SwissRe

아시아 지역, 2015 년에 가장 많은 손실 기록

아시아 지역의 모든 이벤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USD 380 억에 근접했다. 네팔의 지진은 2015 년 전세계 최대 규모의 재해였는데, 이로 인해 거의 9,000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이는 단일 이벤트로 인한 최대 규모의 사망자 수이다. 네팔 지진으로 인한 총 손실 규모는 USD 60 억 정도로 추정되며, 이에 는 인도, 중국 및 방글라데시에서 보고된 손해도 포함되어 있다. 아시아 지역에서 대규모 손실을 유발한 기타 이벤트들은 일본의 태풍 고니(Goni), 인도 남부의 홍수 및 텐진항 폭발사고 등이 있다. “네팔의 지진은 수도 카트만두 근방을 강타했는데, 이로 인해 대대적인 파괴와 손실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은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번에도 비극적 사건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가장 어려운 지역을 강타했습니다”라고 스위스재보험 수석이코노미스트 Kurt Karl 이 언급했다.

추위 및 더위

전 세계적으로 손실 수준은 과거 10 년 기간의 연평균에 비해 낮았다. 이는 작년에 이어 양호한 미국 허리케인 시즌에 주로 기인한 것이었다. 작년은 대규모 허리케인이 미국을 강타하지 않은지 10 년째 되는 해였다.¹ 북미 지역에서 최대 규모 손실은 2 월 중순의 겨울폭풍에 기인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17 개 주가 손해를 입었다 (메사추세츠 주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음). 통합 보험손실은 USD 20 억에 달했는데, 이는 얼어붙은 수도관의 파열 및 얼음 하중 또는 물로 인한 재산손해에 주로 기인한 것이었다.

미국의 혹독한 겨울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2015 년은 전반적으로 가장 따뜻한 한 해였다. 열파는 전 세계에 걸쳐 상당수의 생명을 앗아갔으며, 장기간에 걸친 고온의 날씨와 강수량 부족으로 인해 수많은 지역에서 가뭄과 산불이 발생했다. 고온 건조한 날씨로 인해 미국에는 1960 년 이후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한 한 해였다. 산불의 타격을 받은 다른 국가들은 인도네시아와 호주 등이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도와 영국 등의 지역에는 극단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다. 인도 첸나이 시는 11 월만 해도 500 mm 를 초과하는 누적 강우량을 기록한 이후 홍수로 인해 마비되었다. 그 이후 12 월에 영국에서는 여러 번의 폭풍우로 인해 중부 및 북부의 상당 지역이 물에 잠겼다. 예비 추정치에 의하면 상기 영국홍수로 인한 보험손실 규모가 약 USD 20 억에 달한다. 또한, 많은 비와 홍수가 미국 내 몇몇 주를 강타했다.

2015 년의 글로벌 기후 패턴은 일반적인 기후 패턴에서 벗어났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엘니뇨였다. 예를 들어, 북대서양 지역에서의 열대폭풍 활동은 미미했던 반면, 태평양 지역에서의 활동은 매우 활발했다.

¹ 2012 년에 허리케인 샌디(Sandy)가 강타했을 때, 폭풍 이벤트로 인한 역대 세 번째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는 Saffir-Simpson 스케일 기준으로 “대규모” 허리케인에 해당되지는 않는다.

표 1: 총 경제적 손실 및 보험손실, 2015 년 및 2014 년
USD 10 억 (2015 년 물가 기준)

	2015	2014	연간 변화율	10년 평균
경제적 손실 (총)	92	113	-19%	192
자연재해	80	104	-23%	181
인재	12	9	31%	12
보험손실 (총)	37	36	3%	62
자연재해	28	29	-3%	55
인재	9	7	28%	7

출처: Swiss Re Economic Research & Consulting and CatPerils

표 2: 2015 년에 가장 대규모 손실을 유발한 재해 보험손실 (USD 10 억)

월	보험손실 ¹	총 손실	이벤트	국가
8월	2.5 - 3.5	N/A	텐진항 폭발사고 ²	중국
2월	2.1	3.0	겨울 폭풍 ³	미국
5월	1.5	2.5	텍사스주의 뇌우, 홍수 ³	미국
4월	1.2	1.6	뇌우 ³	미국
8월	1.1	1.6	태풍 고니 ³	일본, 필리핀, 북한
12월	1.0	1.2	홍수 (폭풍우 Eva 및 Frank) ⁴	영국, 아일랜드

주: (1) 책임보험 및 생명보험 손실을 제외한 손해 및 기업휴지 보험.

출처: (2) 스위스재보험 추정치; (3) 미국 자연재해 수치 (Property Claims Services 의 승인을 받음) 및 스위스재보험 추정치; (4) Perils AG 및 스위스재보험 추정치

텐진: 리스크 누적의 복잡한 퍼즐

본 시그마 연구에는 텐진에 대한 특별 챕터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챕터는 항구와 같은 대규모 교통허브의 누적 리스크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2 차 폭발 리스크와 클린업 작업으로 인해 상기 현장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험사들은 손상 또는 파괴된 수많은 자산(텐진항을 거쳐 운송되는 수많은 자동차 등)으로 인한 손실 규모를 추정하기 매우 어렵게 되었다. 폭발의 심각성과 폭발시점에서의 대규모 자산 익스포저는, 텐진항 폭발사고가 2015 년 최대 규모의 보험손실 이벤트일 뿐만 아니라, 인재로 인한 아시아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 이벤트이며 또한 인재로 인한 전 세계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 이벤트들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표 3: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재로 인한 보험손실 (2015 년 물가 기준, USD 10 억)

연도	국가	이벤트	보험손실	피해자
2001	미국	WTC, 펜타곤 및 기타 빌딩에 대한 테러 공격	25.2	2982
1988	영국	플랫톱 Piper Alpha 폭발사고	3.0	167
2015	중국	텐진항의 창고 (유해 화학물질 보관) 폭발사고	2.5 - 3.5*	173
1989	미국	Petrochemical 공장의 증기 폭발사고	2.4	23
1979	미국	원자력발전소 피해	1.4	
2001	프랑스	폭발로 인한 비료공장 파괴	1.3	30

*잠정적

출처: 스위스재보험.

또한, 본 시그마 연구는 항공 및 디지털 테크놀로지(소셜미디어 포함)가 재해 리스크 관리와 관련하여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다.

Notes to editors

Swiss Re

The Swiss Re Group is a leading wholesale provider of reinsurance, insurance and other insurance-based forms of risk transfer. Dealing direct and working through brokers, its global client base consists of insurance companies, mid-to-large-sized corporations and public sector clients. From standard products to tailor-made coverage across all lines of business, Swiss Re deploys its capital strength, expertise and innovation power to enable the risk-taking upon which enterprise and progress in society depend. Founded in Zurich, Switzerland, in 1863, Swiss Re serves clients through a network of about 70 offices globally and is rated "AA-" by Standard & Poor's, "Aa3" by Moody's and "A+" by A.M. Best. Registered shares in the Swiss Re Group holding company, Swiss Re Ltd, are listed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 on the SIX Swiss Exchange and trade under the symbol SREN. For more information about Swiss Re Group, please visit: www.swissre.com or follow us on Twitter @SwissRe.

How to order this sigma study:

The English, German, French, and Spanish versions of the *sigma* study No 1/2016, "Natural catastrophes and man-made disasters in 2015: Asia suffers substantial losses", are available electronically on Swiss Re's website: www.swissre.com/sigma. The versions in Chinese and Japanese will appear in the near future.

Printed editions of sigma No 1/2016 in English, French, German and Spanish are also available now. The printed versions in Chinese and Japanese will be available shortly. Please send your orders, complete with your full postal address, to sigma@swissre.com

How to obtain a copy of this sigma media information:

The English, German, French, Spanish and Portuguese versions of this sigma media information are available electronically on Swiss Re's website: www.swissre.com